김우빈 6년 만에 스크린 복귀

'외계+인' 죄수 관리자 역
"첫 SF도전 새로운 즐거움"

"첫 테이크 전 공기와 두근거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동훈 감독 신작 '외계+인' 1부로 6년 만의 스크린 복귀를 앞둔 배우 김우빈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언론과 만나 첫 촬영 당시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김우빈은 2017년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지난달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대중과 먼저 만났지만, 복귀 후 처음으로 촬영한 작품은 '외계+인'이었다.

최근 영화 홍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그는 "관객분들을 가까이서 만난 게 6년 만이라 더 반갑고, 감사하고 많이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김우빈은 '외계+인'에서 지구로 호송된 외계 행성의 죄수들을 인간의 몸에 가두고 관리하는 가드를 연기했다. 조력자 썬더가 가드와 똑같은 모습으로 외형을 바꾸는 장면에서는 1인 4역을 소화하기도 했다.

그는 "가드는 임무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할 때도 제 눈앞에 보이는 사사로운 것들을 최대한 담지 않으려고 했다. 또 어떤 상황이 와도 크게 휘둘리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김우빈 /에이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외계+인'이 자신의 첫 SF 작품이라는 김우빈은 "촬영장 가기 전에는 직접 보지 못한 세계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무서움이 컸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즐거움이 두려움을 이겨내더라"며 "연기하면서 자신감도 더 생겼고 제가 (작품 속 설정을) 믿기 시작한 뒤로는 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귀작으로 이번 작품을 택한 이유를 묻자 주저 없이 '최동훈 감독'이라 답했다. 최 감독은 2017년 영화 '도청'을 제작하던 중 주연 배우였던 김우빈이 비인두암으로 활동을 중단하자 대체 배우를 찾지 않고 제작을 무기한 연기했다.

김우빈은 "제가 없으면 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큰 결정을 내려주신 게 정말 힘이 됐다"며 "내가 만약 복귀한다면 최 감독님 시나리오를 가장 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감독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게 어떤 역이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마음으로 지냈었어요. 마침 감독님께서 '외계+인' 이란 작품을 제안해주셨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합류하겠다고 했죠."

'외계+인'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다. 2부는 내년 개봉 예정이다. 그는 "관객분들도 2부를 보시면 이 작품이 엄청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우빈은 지난 12일이 비인두암 치료를 끝낸 지 꼭 5년이 된 날이었다며 "검사 결과 아주 깨끗하고 전부 건강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모두가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예전의 저는 항상 미래에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배우가 될 거니까 지금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늘 채찍질만 하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자꾸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더 관찰하려 해요. 이 순간들을 더 즐기면서 살아보려 합니다." /연합뉴스

김희선 "배역도 시대에 따라 변하죠"

'블랙의 신부' 서혜승 역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블랙의 신부'에서 서혜승으로 분한 배우 김희선은 18일 화상 인터뷰에서 "사회가 바뀌면서 드라마 주인공들도 점점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선이 말한 대로 서혜승은 복수의 칼날을 가는 여자 주인공이다. 죽은 남편의 불륜녀이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진유희(정유진 분)에게 복수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렉스에 가입하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구를 만들고야 만다.

김희선은 "한 방 먹일 때는 시원하게 따귀도 때리고 살벌한 위협도 한다"며 "지고지순하고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서 통쾌하고 색달랐다"고 말했다.

서혜승은 몇 번이나 진유희의 정체를 폭로할 기회를 얻지만 총 8회 중 6회에 다다라서야 진유희의 범죄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알린다.

"성격이 급한 저는 절대 혜승이처럼 못하죠. 만나자마자 당장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웃음)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때를 기다리는 서혜승을 연기하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김희선은 서혜승과 성격은 상극이지만, 결국 이혼을 결정하는 점 등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배우 김희선 /넷플릭스 제공

그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나 역시도 아이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그래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냐"고 반문했다.

온라인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블랙의 신부'는 17일 기준 글로벌 순위 8위를 기록했다. 김희선은 작품의 인기를 실감하냐는 질문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 일어나보니까 SNS 팔로워 숫자가 1만 명 늘어서 인기를 실감했어요.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1화만 보려고 켰다가 호로록 다 봐버렸다는 연락을 받으면 뿌듯합니다." /연합뉴스

'동네 한 바퀴2' 이만기 "장딴지 터지도록 돈다"

김영철 후임으로 진행 맡아
나문희 내레이션으로 참여

"김영철 선생님이 가셨던 동네라도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새로운 '동네 한 바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영철 후임으로 KBS 1TV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 '동네 한 바퀴' 시즌2 진행을 맡게 된 씨름선수 출신 방송인 이만기가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동네 한 바퀴'는 전국 곳곳을 여행하며 동네의 숨은 매력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김영철이 2018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진행해왔다. 김영철은 배우로서 연기에 전념하기 위해 지난 9일 하차했다.

이만기는 새 진행자로 낙점된 소감을 묻자 "김영철 선생님이 워낙 동네 구석구석을 훑어가며 사랑받았는데, 이렇게 덩치 큰 놈이 동네 구석구석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어 "장딴지가 워낙 굵으니 장딴지가 터지도록 동네를 돌아보겠다"며 "우리 어머니들의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는 그런 따뜻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네 한 바퀴'는 시즌2를 맞이하면서 배우 나문희가 내레이션을 맡는 등 프로그램 형식에도 변화를 줬다.

동네 한 바퀴 '애청자라고 밝힌 나문희는 "나이가 있고 하나 ' 뽈뽈 ' 돌아다닐 수 없어 김영철씨가 대신 다녀주는 걸 매주 봤었다"며 "이만기씨처럼 기운차게 다니지는 못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동네 구경을 이리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최인성 PD는 "시즌2에서는 좀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간다"며 "함께 울고, 웃기도 하고, 왁자지껄한 동네의 이야기도 전하는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10분 방송. /연합뉴스

'동네 한 바퀴' 진행자 이만기 /KBS 제공

유희열 KBS '스케치북' 접는다

"표절 의혹 받아들이기 힘들어"

표절 논란에 휘말린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13년간 진행해온 KBS 2TV 음악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한다.

유희열은 소속사 안테나를 통해 "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600회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1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유희열은 2009년 4월부터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주 방송일인 22일에 600회가 방송될 예정이다.

유희열의 표절 논란은 지난달 발매 예정이었던 프로젝트 음반 '생활음악' 수록곡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고, 과거 유희열이 작곡한 성시경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등의 곡들도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희열은 하차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제기된 표절 의혹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저는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 엄격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희열은 "그동안 쏟아졌던 수많은 상황을 보며 저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저의 남은 몫이 무엇인지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며 외면하지 않겠다"며 "음악을 아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통합뉴스룸 10: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40 팔도밥상 스페셜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징크스의 연인재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재 9:30 930 MBC 뉴스 9:55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45 기분 좋은 날 11:15 글로벌 동물뉴스재 11:45 치치핑핑 시즌4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45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15 애니갤러리 11:45 헬로카봇 12 붐바	6:10 세계테마기행재 7:00 두다다쿵 7:15 티시타시 8:00 딩동댕 유치원 8:20 한글용사 아이야 9:05 빅블루 9:2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0:10 한국의 둘레길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극한직업 1: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50 EBS 다큐프라임 3:35 안전채널e 3:40 지식채널e재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파 피그 5:00 EBS 뉴스 5: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6: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6:45 타타와 쿠마 7:00 히어로 써클 7:30 한국의 둘레길 7:50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재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 다큐프라임 10: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1:55 클래스e
12:00 통합뉴스룸 1:00 아마도 마지막 존재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0 통합뉴스룸 2:10 열린채널 2:50 어린이 동물티비 3:20 청춘야구단 4:00 사사건건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2:15 징크스의 연인재 1:30 세상을 걷다 스페셜재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0 KBS 뉴스타임 3:10 갤럭시키즈재 3:30 TV 유치원 4:0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5:00 도깨비 언덕에 왜왔니? 5:15 뽀족뽀족 포크가족 5:30 꿀잼 영화가 좋다 5: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호적메이트 스페셜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좋아좋아 3:55 기분 좋은 날재 4:55 5 MBC 뉴스 5:10 PD 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50 골 때리는 그녀들재 2:00 뉴스브리핑 4:00 와이드 정보쇼 알고보면 5:00 SBS 오뉴스 5:50 골때리는 외박재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일꾼의 탄생 8:30 으라차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생로병사의 비밀 10:50 더 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가면 8:30 옥탑방의 문제아들 9:50 징크스의 연인 11:00 요즘 것들이 수상해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전설끼리 홀인원 10:30 라디오스타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뉴스 9:00 골 때리는 그녀들 10:40 골 때리는 외박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7월 20일 (음력 6월 22일)

子 48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매사를 양보하라. 60년생 지방 출장은 가능하면 삼가라. 72년생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 84년생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다.

丑 49년생 다소 속상할 일이 있겠다. 61년생 중요한 결정이라면 내일로 미뤄라. 73년생 정면 대결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85년생 역발상이 필요한 순간이다.

寅 50년생 철저히 준비하면 승산이 있다. 62년생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74년생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을 받는다. 86년생 괜히 걱정되고 한숨만 나온다.

卯 51년생 기운이 솟아오르니 두려울 것이 없다. 63년생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 75년생 미래를 위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 87년생 결전의 순간이 왔다.

辰 52년생 춤추고 노래하니 즐겁다. 64년생 너무 허세를 부리면 곤란하다. 76년생 뜻은 장대하나 현실은 초라하다. 88년생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라.

巳 41년생 바다는 잠잠하고 천하는 태평하다. 53년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65년생 일단 정해진 결정은 바꾸지 말라. 7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난다.

午 42년생 예정에 없던 잡수입이 생긴다. 54년생 자존감이 한 없이 낮아진다. 66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대세에 순응하라. 78년생 한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다.

未 43년생 착한 일하고 오히려 원망을 듣는다. 55년생 절대 윗사람과 다투지 말라. 67년생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79년생 타인을 비방하면 험한 꼴을 당한다.

申 44년생 현명한 언행으로 행복을 지킨다. 56년생 먼 곳으로부터 친구가 찾아온다. 68년생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80년생 꿈은 이루어진다.

酉 45년생 갈대는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다. 57년생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69년생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81년생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삼가라.

戌 46년생 좋은 소식이 있겠다. 58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른다. 70년생 고생만 하지 도무지 남는 것이 없다. 82년생 참고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다.

亥 47년생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겠다. 59년생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71년생 나서지 말고 일단은 사태를 관망하라. 83년생 노력하면 다 된다.